복음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지친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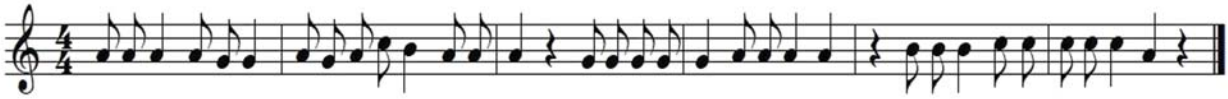
2020. 11. 29. 대림 제 1주일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당신 앞에서 산들이 뒤흔들리이다."(이사 63,19)

교구 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이사 63,16ㄹ-17.19ㄷㄹ; 64,2ㄴ-7 **제2독서** 1코린 1,3-9 **복음** 마르 13,33-37

화 답 송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하느님 저희를 다시일으켜주소서 당신얼굴을비추소서 저희가구원되리이다

복음환호송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제2134호]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 380-2811 www.gjcatholic.or.kr

기다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나요?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11월의 끝자락 매일 미사 중 복음 말씀을 들을 때면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임을 느낍니다. 특히 이천 년 전 이미 오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중에 '다시 오실'(재림,再臨)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며 교회의 새로운 해가 시작한다는 점에서 종말과 영원한 생명이 맞닿아 있음을 실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종말은 단순한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종말과 새로운 삶의 시작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 크게 '부정', '무관심', '긍정'이라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부정적인 기다림'은 기다리는 대상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부정적인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한 기다림'입니다. 대상이 오든지 말든지 별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무관심한 기다림은 기다림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긍정적인 기다림'은 기다리는 대상이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늘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 대상이 빨리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신자들이라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부정적인 기다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돌아오는 성탄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겠지'라며 조그마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기다림의 모습은 설렘과 기대를 품은 희망 가득한 모습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전례력의 시작인 오늘 "깨어 지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자리한 무관심하고 잠들어 있는 마음들을 치우고 기대와 희망으로 우리에게 오실 하느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무관심하게 잠들어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 '희망', '사랑'의 자세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때 성탄의 기쁨과 은총은 배가 될 것입니다.

임재정 안젤로 신부
문흥동 본당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국 천주교회 차원의 희년으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희년 기간은 **2020년 11월 29일(대림 제1주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제1주일 전날)까지입니다.**

사도좌 내사원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신자들의 신앙 증진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사원에 부여하신 특별 권한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이 **통상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전대사를 받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이 전대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연옥에 갇힌 신자의 영혼에게 대리 기도의 방식으로 얻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가. 한국의 교구장 주교들이 희년을 경축하도록 *지정한 기념 성당과 성지를 어느 곳이든 순례하여 그곳에서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하거나, 한국인 두 번째 사제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QR코드 참고)와 주모경을 바칠 때

* 교구 지정 기념 성당 및 성지
1) 교구장 지정 : 가톨릭 목포성지, 주교좌 임동 성당
2) 주보성인이 성 김대건 신부인 성당 : 두암동, 매곡동, 상사, 염주동, 완도 성당

* 희년 경축이나 특별 행사
1) 희년을 맞아 열리는 사제 쇄신을 위한 프로그램
2) 김대건 신부님 희년 행사(개막 및 폐막 장엄미사, 교구 희년 행사)나 교구장 주교가 정한 심신 행위(선교를 위한 기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QR코드 참고), 주모경)

나.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나 유물 앞에서 알맞은 시간 동안 경건한 묵상을 한 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치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부르는 간구로 기도 봉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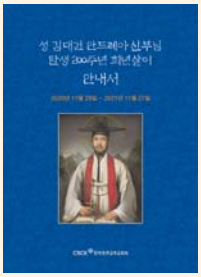
* 성 김대건 신부 유해가 보존되어 있는 광주대교구 내 성당
- 남동, 동산동, 선원동, 지산동, 진도, 함평 성당

다.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성인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 QR 코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QR 코드

※ 매주 연재되던 김명철 신부님의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한 여정」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안내」로 한 주 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살이 안내서

(신국판, 120면, 2,000원, 2020년 11월 18일 발행)

희년 담화와 기도, 김대건 신부님의 서간과 함께 신부님의 신앙과 사랑을 묵상하는 9일 기도, 희년 전대사 수여 조건과 전대사 수여 성지와 성당 목록을 실었다. 안내서는 김대건 신부님처럼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일상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 구입 문의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02) 460-7582~3

"바이든과 프란치스코 교황"

2017년 여름,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이들을 2주간 방문했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머물며 꽤 많은 교포들과 교류하고 정을 나눴던 버지니아주의 소박한 중소 도시였다. 분위기가 흉흉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잇달아 발표하는 이민 정책들은 아직 신분이 불확실했던 한인 교포들에게는 거의 공포였다.

부모에게 이끌려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어른들이 합법적 신분을 아직 취득하지 못해서 자칫 강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떠는 아이들이 꽤 많았다. 너무 귀엽고 기특하고 대견한 아이들, 그들이 자기 잘못도 아닌데 겪는 그 불안한 상황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가벼운 투정이었고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주민들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었다. 부모와 강제 격리되는 난민 아이들, 국경에는 높은 장벽이 세워졌고, 추호의 인도주의적인 배려도 국가 이익에 반하는 태도로 간주됐다.

그리고 4년 뒤, 트럼프의 연임을 막아내고 새 미국 대통령이 된 조 바이든은 존 F. 케네디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 가톨릭 신자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많은 면에서 트럼프와 비교된다.

11월 9일 대통령직 인수 계획에 대한 연설에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경제 회복, 인종 차별 반대, 기후 위기 등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 외에 모든 이슈에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였다. 예컨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을 트럼프가 내팽개쳤던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으로 꼽은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할 수 있다.

바이든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들을 통해 미루어, 그는 아내와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비롯한 많은 힘든 개인사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신앙에 크게 의지했다. 그는 이른바 태중 교우였고 어려서부터 가톨릭 신앙 속에서 자랐다.

오랜 경륜을 지닌 정치인이었던 그는 이번 대선 캠페인 중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칙 '모든 형제들'을 자주 인용하기도 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회적 관심의 주제들을 염두에 둘 때, 어쩌면 바이든 새 대통령은 앞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유력한 동맹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미국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을 지지했다. 정작 미국 가톨릭 신자들은 절반 이상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이는 바이든이 낙태 지지자라는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교회 내 여론은 바이든이 참된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고 비난한다. 연약한 인간 생명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을 교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히 바이든의 낙태 지지는 큰 걸림돌이니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아닌, 외국의 새 대통령에 대해서 이리도 지대한 관심과 장황한 사설을 늘어놓는 이유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현실, 곧 지구적인 기후 위기, 앞으로 더욱 빈발할 팬데믹 현상, 기아와 난민 문제, 맹목적인 자본주의 등등이 공동의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대처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난감한 지도자가 얼마나 난처한 상황들을 야기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신자이니, 마찬가지의 기대와 바람을 갖는다.

박영호 안드레아
가톨릭신문 기자

성폭력 없는 평화롭고 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미영 발비나 / (사)우리신학연구소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많이 보게 된 점입니다. 신자인 저는 아무래도 가톨릭교회와 관련한 영상물을 찾아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는 '넷플릭스'에서 「천사들의 증언」(2017)과 「성역의 범죄」(2019)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인데, 비슷한 주제를 다룬 영화들도 있지만 여기엔 실제 사건 관계자들이 등장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서구교회 언론을 보면, 사제뿐 아니라 아주 유명한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지도자들도 아동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자꾸 불거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들은 참담하고 부끄럽지만,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제대로 바꾸고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서구교회에서는 관련 지침 마련이나 예방 교육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교회의 기금을 지원받는 동료는 사업 전에 미리 며칠에 걸쳐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는데, 교회 일을 하려는 이들은 성별이나 직분을 떠나 아주 엄격하고 체계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2018년 초 한국천주교회에서도 사제 성폭력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면서, 교구마다 성폭력 피해 접수처가 설치되고 주교회의 산하에 '교회 내 성폭력 방지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졌습니다. 사제 평생교육과 신학교 양성 과정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 더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구성원이 이 문제에 대해 교육받거나 참고가 될만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침서' 같은 것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에서는 2018년 미투운동이 한창 뜨거웠을 때, 여러 교단에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마련했습니다. 외부 기관 지침서의 내용 중 참조할만한 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 성희롱과 성폭력은 평소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평소에 여성, 청소년, 아동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합니다.
- 신자는 사제도 인간이며, 성적 문제와 관계에 있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성적 대상으로 투사하지 않으며, 존경과 왜곡된 영적 권위를 분별합니다.
-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희롱적 농담, 여성 비하적 발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 교구와 본당 안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와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잘 운영되는지 감시합니다.
-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며,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익혀 둡니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삼가며, 피해자를 치유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하며, 교회 안에 성평등한 문화가 정착되도록 민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합니다.

「교회 안의 여성」이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사)우리신학연구소 이미영 발비나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11월 29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 미사와 희년 선포식
12월 5일 박물관 준공식 및 축복식
견진, 사목방문(염주동)
12월 6일 견진, 사목방문(북교동)

총대리 주교님 동정

11월 29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개막 미사와 희년 선포식
12월 2일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시상식(CBCK)
12월 5일 박물관 준공식 및 축복식
12월 6일 견진(봉선유안)

성소국

예비신학생 담임 학년말 연수

일시 : 12.8(화) 10:00
대상 : 예비신학생 담임 신학생
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교구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2.12(토) 10:30
장소 : 교구청 성당
대상 : 성소후원회 회원, 신학생 부모님, 예비신학생 부모님
문의 : 062) 380-2280~1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접수처

전화 : 성폭력대책위원회 062) 380-2238
전자우편 : fiatvdomini@hanmail.net

교구박물관 유물기증 안내

교구에서는 교회(교구) 역사 및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로 오래된 성물, 물품, 그림, 조각, 서적, 서한, 사진 등을 기증받고자 합니다. 기증된 물품은 교회사연구소의 협력을 받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무처 062) 380-2812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MHz FM 99.5여수MHz
페이스북 kjpbc99.9mhz 트위터 kjpbc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월-금 (재방송) 16:50-17:00]

11.30(월)-12.2(수) 오병화 신부(압해도 본당) / 12.3(목)-5(토) 양완 신부(녹동 본당)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은 '2021년 개편(11.30(월) 시행) 프로그램' 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2021년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개국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국 25주년 슬로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에 맞춰 교구민들과 지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코너로 개편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수녀들의 수다' [11.30(월) 14:05-14:50]

살레시오수녀회 수녀님들이 출연하는 '수녀들의 수다'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수녀님들의 상큼, 발랄한 이야기와 함께 수녀님들에 관한 아이들의 순수하고 엉뚱한 궁금증도 유쾌하게 풀어봅니다. 이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SNS(페이스북, 유튜브)와 어플 'cpbc빵'을 통해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on-Air' (검색)→클릭→완료/ 유튜브: '광주가톨릭평화방송'(검색)→클릭→완료
'cpbc빵': 어플 다운로드→지역 설정 '광주'→메인 화면에서 '보이는 라디오' 클릭
개편과 함께 새로워진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많은 청취와 관심 바랍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더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파이프오르간 연주회 '말씀과 함께하는 대림음악회'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교회음악원에서는 매년 2회 파이프오르간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실황 중계되는 이날 공연은 12. 21(월) 19:00 임동주교좌성당에서 "말씀과 함께하는 대림음악회"를 주제로 한 제19회 파이프오르간 정기연주회입니다. 이번 연주는 대림 주제를 가진 오르간 연주곡으로 전례적 주제를 가진 곡들은 말씀과 함께할 때 더 그 가치가 빛나며 전달력이 있기에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의 강론과 함께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이 오르간 연주곡 전에 성가를 선창하며 Magnificat은 Alternatim(오르간과 합창단이 교창으로 연주하는 형식)으로 연주됩니다. 이번 연주회는 유튜브 '임동 주교좌성당'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안내]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방문 또는 교육 시 꼭 마스크 착용 바랍니다.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2.4(금) 16:00
장소 : 평생교육원 3층 경당
문의 : 062) 380-2843

* 군 입대를 앞둔 예비군인과 부모님께는 주교님께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반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81

기관 · 단체

수험생 부모님을 위한 피정
일시 : 12.3(목) 10:30-14:3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지도 : 장명일 다니엘 신부
준비물 : 미사준비, 마스크,
썬크림, 모자(야외묵주기도)
문의 : 062) 571-5004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일시 : 12.5(토) 09:20-11:30
장소 : 평생교육원 성당
내용 : 묵주기도, 미사(고해성사, 전대사 은총)
문의 : 파티마세계사도직 010-6490-8475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피정
기간 : 12.23(수) 16:30-25(금) 13:30
장소 : 왜관피정의 집
참가비 : 24만 원, 접수 후 입금
계좌 :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 054) 971-0722, 010-6791-0071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 '21.1.2(토)-30(토), 4주
장소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대상 :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문의 : 국제교류팀 053) 593-1273

동계신앙학교 및 복사학교 in JEJU 위탁 및 대관
일시 : '21.1-2월 / 장소 : 성이시돌젊음의집
문의 : 064) 796-7711

예수회 송봉모 신부 성경대학 동영상 강의
개강 : 3월(한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 : 02) 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장성프란치스꼬의집 직원 정원외 추가 모집
(조리원/요양보호사)
일시 : 채용시까지
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제출
문의 : 사무국장 061) 390-9600

수도회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모임
일시 : 12.6(주일) 09:30
장소 : 서울 돈암동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 남승원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예수고난화-개방의 날
일시 : 12.4(금) 10:00-15:00
내용 : 성사, 강의, 미사(점심무료)
문의 : 일곡동 명상의 집 062) 571-500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성소개별상담 및 만남
일시 및 장소 : 전화상담 후 결정
대상 :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미만 미혼여성
문의 :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수도회

원동본당 사무원 모집
자격 : 세례 3년 이상, 견진 받은 자,
한글 · 엑셀 · PPT 가능
서류 : 이력서, 교적 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마감 : 12.10(목)까지 / 면접 : 추후공지
문의 : 062) 944-5004

모두 함께 합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교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지역 내 사회적 배려기업을 소개합니다

하워짓커피랩
smartstore.naver.com/howasit_coffee

여러산지의 커피를 직접 로스팅해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 드립백 24개 패키지(콜롬비아 산타로사 수프리모 등 10종) 24,000원
- 콜드브루(500ml) 2병 패키지 14,000원

구입문의 : 070-7799-6711
광주 광산구 사암로 300(월곡시장)
1층 바열 3호

완도첫마을협동조합
www.wandofirst.co.kr

완도 로컬푸드 전복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 건강의 섬 완도 앞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 17-18미 1kg 40,000원
- 12-13미 1kg 45,000원
- 9-10미 1kg 50,000원

구입문의 : 061) 554-0345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1길 6

영화 안내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개봉 : 11.19(목)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는 일평생 봉쇄구역을 떠나지 않고 침묵과 고독, 스스로 선택한 가난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위한 기도에 전념하는 봉쇄수도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파티마의 기적
개봉 : 12.3(목)

「파티마의 기적」은 세계 3대 성모 발현지 중 하나인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일어난 성모 마리아 발현 이야기. 그를 목격한 세 명의 아이들의 놀라운 만남과 위대한 증언을 담은 작품.

- 극장 : 광주지역 CGV(상무, 용봉, 터미널, 첨단, 하남) 관람 가능
- 할인 혜택 : 주보 지참 시 6천 원 관람 가능
(10인 이상 관람 시 단체 관람으로 원하는 시간 사전예약 가능)
- 문의 : 062) 369-9367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념 전시회 안내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전」

전시 기간 : 12.5(토)-2021.2.4.(목) / 62일간
관람 시간 : 10:00-17:00(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 광주가톨릭박물관 1, 2층(천주교 광주교구청 내)